

저자의 표현대로 산에서 온갖 무법자 노릇을 하며 제멋대로 사는 밤나무의 모습과 다름 없었다. 그러다 받아들이는 용기를 지닌 대나무 같은 선배들을 통해 내가 아닌 우리를 향한 조직 생활의 참맛을 깨닫고 실천하게 되었다.

우리는(인간) 왜 나무를 보며 인생을 통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자연스레 내 가슴에 스며들고 있었다. 역경과 시련 즉 흔들리면서 더 성장한다는 점, 무엇보다 기본이(뿌리) 탄탄해야 더 건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한 인간의 인생 노래와 그 곡조를 같이했다. 매일 마주하는 민원인과의 관계적 실타래도 그 바늘로(나무의 철학) 풀 수 있겠다는 용단이 생기고 있었다. 한때는 소위 악성, 고성高聲 민원인은 공직자의(나무) 성장에 그와 같은 민원인은 필요 없는 존재라고만 여긴 적이 있었다. 하지만 때론 쓴소리처럼 들리는 민원인의 모습을 통해 법을 더 들여다볼 수 있었고, 경청하는 자세를 통해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헤아리게 되었으니 결국 민원인 한분 한분이 나의(나무) 성장에 필요한 요소라고(온도, 습도, 토양 등) 생각의 전환을 이루게 되어 참 소중하게 다가왔다. 한 나무가(공직자)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이를 둘러싼 여러 환경이(민원인)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세상의 이치를 나무로 배우게 된 것이다.

우리구 건물 1층에 가면 민원인이 직원에게 칭찬·격려하는 제도인 ‘해피트리’가 조성돼 있다. 얼마 전 민원의 최전선인 제증명 업무로 민원인으로부터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한 어르신께서 적은 나의 칭찬 글을 보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그 눈물은 공무원·주민과의 소통과 격려를 나무라는 매개체로 이었다는 데 그 의의가 충만한 대표적인 나무 행정 실천의 모습이라 더 가치가 있었다. 이에 착안해 동기同期와 난 서로를 북돋기 위해 칭찬 글을 게재했다. 이는 나무라는 포용성 있는 특성을 통해 사람 간의 유대紐帶를 형성하게 된 긍정적 효과였다. 또한 고층빌딩이 가득한 강남의 선입견을 뛰어넘어 구區와 의회에서 매년 행하는 자연과의(나무) 동행인 나무심기라는 해안은 디지털 시대에도 필수적인 나무의 존재를 각인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기억되고 있다. 특히나 층간 소음 등으로 이웃 간의 불신이 팽배한 지금, 뜻있는 동네 주민·도래들과 나무 심기 실천을 통해 소통과 배려, 존중을 키워나가는 나의 실천력은 실질적인 환경 보호는 물론 궁극적으로 이웃 간 오해를 이해로,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전환하는 나무의 넉넉함을 극대화한 사례로 빛나고 있다.

말 없는 나무를 오랜 시간 지켜본 저자의 결심은 뜻밖의 시선을 던져주기도 하지만 이 또한 나의 수고를 얻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나무의 태도를 인정하